

TRANS- HUMANITIES

Title : 판타지(Fantasy)와 스펙터(Spectre) 개념을 통한
『로드 짐』 읽기

Reading *Lord Jim* Based on Slavoj Žižek's
“Fantasy” and “Spectre”

Author(s) : 정선희 (Sunhee JUNG)

Source : *Trans-Humanities*, Vol. 10 No. 2 (2017), pp. 169–98.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c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판타지(Fantasy)와 스펙터(Spectre) 개념을 통한 『로드 짐』 읽기

정선희 (이화여자대학교)

I. 머리말

이 글에서는 조셉 콘라드(Joseph Conrad)의 『로드 짐』(*Lord Jim*, 1900)이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판타지(fantasy)가 드러나는 작품이라 보고,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판타지가 등장인물들에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개인적인 자유의지에 어떠한 심각한 문제점과 병리적 복잡성을 야기하는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제국주의의 확대 재생산이나 혹은 제국주의의 비판이나라는 콘라드 작품에 관한 지속적인 논쟁 가운데 하나를 슬라보예 지젝(Slavoj Žižek)의 이데올로기 논의를 통해 제국주의의 비판의 측면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검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콘라드의 작품에 관한 끊임없는 논쟁의 한가운데 위치한 것은 이데올로기의 비판 문제이다. 콘라드의 이데올로기 비판은 작품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복잡한 서술구조와 이미지 그리고 수사법 속에 은닉된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종종 그의 작품이 모호하다거나 혹은 양가적이라는 비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령 제국주의를 옹호한다고 보는 입장은 치누아 아체베(Chinua Achebe)를 필두로 한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와 탈식민주의의 비평가들에게서 드러나며, 이들은 콘라드가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아체베는 서구가

지닌 욕망의 속성이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 욕망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잠재해 있는지를 깊이 파고들지 못하고 서둘러 단순화해 버린 문제가 있다. 반면, 베니타 패리(Benita Parry)는 훨씬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하면서 제국주의의 양가성과 그 실천과정 속에서의 부패를 지적해 낸다. 패리의 이 같은 공적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형식적 요소와 사상적 요소가 맺고 있는 역학관계에 대한 고려 없이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다룬 아쉬움이 있다. 물론 제레미 호손(Jeremy Hawthorn)의 경우 콘라드의 작품에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모호하고 기만적인 수사가 거짓된 사상(idea)으로 이용될 사례들을 제시하면서, 문학적 수사의 이데올로기 비판 기능을 통해 한층 진일보한 분석을 보여준다. 그러나 언어적 수사가 지닌 성찰과 반성의 힘에 대한 통찰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인 층위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이데올로기 자체의 복합성을 오롯이 드러내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그에 비하면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은 이러한 한계들을 한층 더 보충해 준다. 제임슨은 문학작품에서의 상상적 재현이 당대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보존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지배 이데올로기의 닫힌 체제 내부에 새롭게 자리한 상상적이고 자유로운 공간과 틈을 만들어 미래 세계에 대한 유토피아적 보상을 제공한다고 본다(236). 이것은 정치적 무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 개념을 이끌어낸 것으로서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무의식 개념을 결합한 지적의 분석과 연결되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슨은 이데올로기에 의해 억눌린 무의식이 해결되지 못하고 잉여나 잔여의 형태로 남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병리학적 구조에까지 관심을 보이지는 않는다. 앞선 평자들의 분석에서 남긴 아쉬움은 서구주체 내부의 균열과 모순에 좀 더 집중하지 못하고 이데올로기가 드러내는 병리적인 복합성에까지 파고들지 못한 한계에서 비롯된 것이다(정선희 23-25). 병리적인 복합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과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증상을 생물적, 정신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연결시킨 것이다. 이러한 병리적 복합성은

텍스트가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보다 무의식에서 감춰진 주체의 목소리에 좀 더 집중할 때 파악될 수 있다. 지젝은 잉여의 형태로 남아 해결되지 못하고 병리학적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데올로기의 과급력을 제시하고 있다. 지젝의 이데올로기론은 이와 같은 콘라드 작품의 이데올로기 비평에서 남긴 아쉬움을 보완할 분석틀이 된다. 지젝의 이데올로기의 논의 가운데서 ‘이데올로기적인 신비화 작업 없이는 현실의 재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판타지와 ‘억압되어 재현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본질의 억눌림이 되 돌아오는 것’으로 정의되는 스펙터(spectre)의 개념은 억눌리는 것들을 분석하는데 있어 유용한 개념이다.

『로드 짐』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령 같은 환영은 주체의 무의식 특히 스펙터를 드러내는 구체적인 예시이다. 가령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혐오스런 육신 속에 숨은 악의에 찬 영혼처럼 그 안에 살면서 파괴를 이끄는 정령”이 그 한 예이다(23).¹ 이는 일등 항해사 짐이 승객들을 버리고 파트나(Patna) 호에서 뛰어내린 사건 이후, 그의 주변을 맴돌면서 괴롭히는 해소되지 않는 죄책감과 의문들 그리고 이로 인한 그의 심리적 상태를 함축한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는 그의 존재 자체를 휘감아 병리적 징후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런데 짐의 집착은 이 작품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에서 출발한다. 그 사건은 일등 항해사 짐이 자신이 승선했던 파트나 호에서 뛰어내린 일이다. 『로드 짐』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파트나 호에서 뛰어내린 전반의 사건과 파트산(Patusan)에서 남은 삶을 보내는 후반의 삶으로 구분된다. 전반의 모든 이야기는 짐이 파트나 호에서 뛰어내린 사건과 연결된다(81).² 파트나 호는 아라비아 메카(Mecca)를 향해 800

1. 앞으로 『로드 짐』의 본문내용을 인용할 때는 페이지 수만 밝히도록 한다.

2. 이 작품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전반부 사건(Lord Jim 1장-23장)과 파트산에서의 삶을 다룬 후반부(Lord Jim 24장-45장) 사건이다. 전반부에서는 대체로 짐의 불명예와 치욕스런 상황에 초점을 둔다면 후반부에서는 가시적인 불명예와 회복 그리고 짐의 죽음을 다룬다. 후반부의 내용은 관점에 따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즉 짐이 전반부에서 겪은 자신의 고난과 역경을 후반부에서 해결한다는 입장과 해결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 작품을

여명의 무슬림 순례자들을 태운 배로서 짐은 이 배의 일등 항해사로 승선한다. 사건의 발단은 파트나 호가 난파선의 부유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나면서부터이다. 때마침 폭풍우가 몰아치면서 짐이 위기상황에 놓이게 되고 여기서 짐은 치명적인 과오를 저지르게 된다. 짐은 선원으로서의 의무인 승객들을 구조하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원들 몇 명과 함께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쳐 버린 것이다. 일등 항해사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다. 파트나 호에서 뛰어내린 후, 짐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강박적인 반복과 집착의 형태를 띤다는 점이다. 승객들을 버리고 도망쳐버렸다는 죄책감은 끊임없이 짐을 과거의 사건으로 되돌린다.

문제는 짐의 이러한 행동이 후회나 철저한 반성에 기초한다기보다 오히려 부정과 변명에 더 가깝다는 점이다. 이것은 짐에게 새로운 삶이라 일컬어지는 파투산에서의 행적에서도 드러난다. 짐은 파투산에서 영웅적 존재로 등극하지만, 그의 행동은 지난 과오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극복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영웅이라는 착각을 한다. 그런데 짐의 ‘척 하는’³ 이 같은 행위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드러내는 지점이다. 파투산에서의 삶이 지난날 짐이 저지른 과오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로의 회귀와 반복이라는 점에서 짐의 집착은 결코 해소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본고의 초점은 승객을 버린 선원이 져야 할 보편적인 도덕적 책임감의 문제가 아니다. “백인의 부담” 혹은 “백인의 책무”(White Man’s Burden)라는 루디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적인 뿌리 깊은 서구의 우월의식에 대한 문제의식이다(McClure 30). 백인의 의무는 더 진화된 유럽인이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필자는 짐이 자신의 고난과 역경을 후반부에서도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입장에 의견을 보탠다.

3.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구문은 ‘작은따옴표’로, 인용구문은 “큰 따옴표”로 구별했음을 밝혀둔다.

비유럽인인 야만인들을 이끌고 통치해야 한다는 서구의 우월주의 사상의 출발점이다. 콘라드가 주로 주목한 19세기의 제국주의는 유럽 중심적 사고와 개인의 이기심에 기초한 합리성의 촉발이 된 인본주의에 대한 신념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신념은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담론을 형성하는데 커다란 영향력을 끼쳐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추동력이 된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신념은 오히려 서구의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드러내는 출발점이다. 짐의 강박의식은 서구 제국주의의 뿌리 깊은 우월의식에 내재한 백인의 책임과 직결되고 본고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논의를 위해 우선적으로 규명해야 할 작업은 『로드 짐』에서 제국주의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지젝의 이데올로기론을 개략적으로 소개한 후 구체적인 작품분석에 들어가도록 한다.

II. 지젝의 판타지와 스펙터

지젝은 물질이 사상을 변화시킨다는 실천적인 동기로서의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사상을 철학과 정신분석학에 접목시켜 이데올로기를 무의식의 이론으로 규명한 인물이다. 지젝의 이데올로기론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유와 신념의 형태로 존재하는 교의(doctrine)로서의 이데올로기이다. 즉 어떤 공언되지 않는 특정한 힘의 이해관계를 위해 이데올로기가 작동한다는 뜻이다. 둘째, 루이 알튀세(Louis Althusser)의 이데올로기적 국가장치에서 논의되는 이데올로기적 실천, 의례, 기관으로서의 이데올로기이다. 셋째, 해체, 자기제한, 자기분산으로서의 이데올로기이다(Zižek, *Mapping* 10-14). 세 번째 정의에 해당하는 이데올로기는 사유와 신념으로서의 이데올로기 개념이 덜하여 주체가 이것을 이데올로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전수용 172). 결국 사

회의 모든 체계 속에 이데올로기가 속속들이 침윤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젝은 이데올로기가 결코 폐기의 대상이 아니고 그렇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작동방식을 좀 더 정교하게 설명하기 위해 자크 라캉(Jacques Lacan)의 판타지와 스펙터의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알튀세르가 개인이 서로 다른 사회적 역할로 호명된다는 호명이론을 통해 주체가 어떻게 상징적 질서에 편입되는지를 설명했다면, 지젝은 판타지와 스펙터의 개념을 통해서 알튀세르의 작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지젝의 이론은 콘라드가 활동하던 영국 제국주의의 시기는 물론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개인들이 구성하는 현실의 본질과 허구성을 인식하는데 있어 큰 틀을 제공해주는 이점이 있다. 지젝은 이데올로기적인 신비화 작업 없이는 현실의 재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신비화 작업이란 곧 판타지 만들기를 의미한다. 이 말은 현실이 이미 이데올로기적인 신비화가 늘 개입되어 있고, 다른 한편 신비화해야 할 만큼 불완전하고 불편한 진실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스펙터는 현실(reality)이 등장하기 위해 억압되어야 할 재현 불가능한 실재(real)가 이데올로기의 억압을 뚫고 되돌아오는 것이다. 부연하면, 스펙터는 현실에 의해 억압된 것이고, 현실에 의해 억눌린 어떤 잉여 부분을 지칭하며, 현실이 상징화하지 못한 재현될 수 없는 현실의 일부가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 스펙터는 억눌린 것이 남아 떠도는 잉여의 형태라는 점에서 환영적 유령(spectral apparition)의 모습을 띤다. 스펙터는 해소되거나 해결되지 못한 채, 현실과 실재를 영원히 분리시키는 간극 속에서 출현한다(Žižek, *Mapping* 21).

왜 유령 없는 현실은 존재하지 않는가? 라캉은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준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서의) 현실은 '물 자체'가 아니다. 현실은 상징적 메커니즘에 의해 항상 이미 상징화되고 구성되며 구조화된다. 문제는 이러한 상징화가 중국에는 항상 실패한다는 사실이고 그것은

실재를 완전히 ‘덮는 것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언제나 불안하고 구제불능의 상징적 부채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실재(즉 상징화되지 못한 채 남은 현실의 일부)는 유령의 모습으로 귀환한다.** [...] 유령은 비완결적이고 실패한 상징화를 통해서 나타나고 유령은 현실과 실재를 영원히 분리시키는 간극 속에서 출현한다.

Why, then, is there no reality without spectre? Lacan provides a precise answer to this question: (what we experience as) reality is not the ‘thing itself’, it is always — already symbolized, constituted, structured by symbolic mechanisms — and the problem resides in the fact that symbolization ultimately always fails, that it never succeeds in fully ‘covering’ the real, that it always involves some unsettled, unredeemed symbolic debt. *This real (the part of reality that remains non-symbolized) returns in the guise of spectral apparitions.* [...] it represents itself only via its incomplete-failed symbolization, and spectral apparitions emerge in this very gap that forever separates reality from the real. (Žižek, *Mapping* 21, 저자 강조)

지젝은 현실이란 현실의 근본적인 차원 속에서 우리의 현실 그 자체를 지탱해주는(덮어주는) 판타지 구성물(fantasy-construction)이라고 보고 이것이 이데올로기라고 정의한다(Žižek, *Sublime* 45). 여기서 말하는 현실 그 자체를 덮는 행위는 바로 현실과 실재의 간극과 균열을 메우려는 작업이다. 그런데 메우려는 이러한 작업에도 불구하고, 혹은 메우려는 작업 때문에 스펙터가 출현한다. 사실 이데올로기가 억압하고 있는 것은 사회 안에 존재하는 갈등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순이나 감추고 싶은 욕망 모두를 포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스펙터는 바로 이러한 기만, 은폐, 왜곡의 과정과 연결된다. 지젝은 라캉의 상징계와 실재

계의 개념을 차용하여 ‘실재’(real)와 ‘현실’(reality)을 구분하는데, 이미 상징화된 체계를 ‘현실’이라 부르고, 상징화되기 전의 물 자체(the thing itself)를 ‘실재’라 부른다. 현실은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무언가를 금지하거나 억압함으로써 구성된다. 또한 현실은 상징화를 통해서 실재를 완전히 망라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상징화의 작업은 늘 실패하게 된다. 스펙터는 바로 이러한 상징화의 작업이 실패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이데올로기가 무의식의 형태를 띠는 것은 개인들의 행동양식에서 확인된다.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허위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 개념이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행한다”로 정의된다면(재인용. Žižek, *Sublime* 28), 이제 지젝에 이르러서는 “개인들이 행동하면서 허상(illusion)을 좇고 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행한다”(they know that, in their activity, they are following an illusion, but still they are doing it)로 정의된다(Žižek, *Sublime* 33). 이 두 주장은 기본적으로 무의식 속에 침투한 이데올로기를 설명하고 있다. 서로 엇비슷하게 보일지는 모르나 두 주장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개인이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현실(reality)이 허상(illusion)임을 알고 있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에 있다. 지젝이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는 바로 개인이 현실의 허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젝은 우리사회에서 작동하는 이데올로기적 허상성과 이데올로기가 지닌 기만, 은폐, 왜곡의 성격을 핵심적으로 짚어내고 있다.

지젝의 이데올로기 이론에서 또 하나 언급되어야 할 부분은 저항하는 주체이다. 알튀세의 호명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와 시스템이라는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자신이 부여받은 역할 속으로 호명된다. 그런데 지젝은 이 호명작업이 불완전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저항하는 주체의 존재 때문이다. 저항하는 주체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 현실의 판타지를 가로지르는 어떤

가능성을 지니는 주체인데, 저항하는 주체야말로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된 현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을 지닌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이데올로기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뜻은 아니다. 개인은 이데올로기적인 보편성과 질서 뒤에 숨은 특정 이익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러한 이익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이데올로기적인 가면과 사회 현실 사이의 거리를 잘 알고 있으면서 특정 이익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지젝의 이데올로기는 단순한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서 경멸되는 거짓,” “자신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것을 주장하는 거짓”인 셈이다(Žižek, *Sublime* 30). 지젝이 개인을 항상 분열된 주체라고 보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다. 개인이 어떻게 사회적 법이나 질서에 종속되느냐 하는 것은 개인의 ‘믿는 척’ 혹은 ‘행하는 척’ 등의 위장된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며, 이 착각의 행위는 곧 “이데올로기적인 착각의 수행적인 힘에 대한 믿음”(his belief in the performative force of the ideological illusion itself)을 보여준다고 지젝은 지적한다(『탈이데올로기 시대의 이데올로기』 86). 동시에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착각이야말로 주체가 대타자에 종속되는 현상이며 이러한 현상은 망상의 수행적인 힘에 있다.⁴

그렇다면 지젝의 이데올로기 개념이 『로드 집』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고 스펙터와 판타지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볼 차례다.

Ⅲ. 판타지: ‘우리 중의 한 명’(one of us)

제국주의가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작품의 처음과 마지막을 관통하면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우리 중의 한 명’의 의미를 규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작품전개의 대부분이 서술자 말로우

4. 지젝의 이데올로기, 판타지, 그리고 스펙터의 상세한 논의는 정성희의 박사학위논문 제2장을 참조한다.

(Marlow)에 의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중의 한 명’은 말로우와 주인공 짐(Jim)의 의식과 무의식을 형성한다. 또한 말로우의 서술은 짐의 행동을 대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옹호하거나 동조하면서 이루어진다. 여러 평자들의 지적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자끄 버투(Jacques Berthoud)는 “우리 중의 한 명”이 일차적으로는 “선원사회의 일원이면서 그 규범에 헌신하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설명한다(65). 우리의 범주에 속하는 이들이 기본적으로 말로우와 동일한 집단임을 감안하면, 우리는 영국 제국주의의 성격을 규명하는 시발점이 된다. ‘우리 중의 한 명’은 말로우가 짐을 지칭할 때 쓴 표현으로 자신과 짐이 동일한 집단의 구성원임을 암시한다. ‘우리’는 ‘같은 부류’ 혹은 ‘동화’의 의미로 기능하며 주인공 짐과 서술자 말로우가 한데 엮힌 인물임을 추측케 한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서술자 말로우와 작가 콘라드를 일치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사실 콘라드가 식민주의자이거나 제국주의자라고 보는 상당부분의 견해가 작가와 서술자를 일치시키는 데서 발생한다. 또한 작가 자신이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필자는 오히려 단순하지 않은 서술 전략과 기법이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근거라고 본다. 이 작품에서도 콘라드는 서술자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말로우와 짐을 그려낸다. 단순하지 않은 서술전략과 다각적인 시선의 유지는 말로우의 구술뿐만 아니라, 처음 1장부터 4장까지의 도입부에 피력된 전지적 화자의 관점에 의한 서술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전지적 관점의 개입은 서술자 말로우가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효과를 지녀 짐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한다. 제라르 즈네뜨(G rard Genette)는 서술하는 입장과 저자의 글쓰기, 화자와 작가 그리고 서술의 수용자와 독자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독자를 복잡한 상황으로 이끄는 작품으로 『로드 짐』을 예로 든다(213-14). 즈네뜨의 예시는 실제 이 작품이 어려워스러기보다 서술 구조의 독특함 때문이다. 가령 말로우의 눈을 통해 보고 그의 입으로 전달되는 사건과 짐의 모습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포함하여 짐을 서술하는 말로우의 태도를 통해서도 말로우를 조망할 수 있다. 작가와 서술자의 구분은 “짐이 자신의 입장을 초월해서 사건을 바라보거나 해석하는 일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서술자를 따로 뒀으로써,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박선화 62). 또 말로우와 같은 화자의 설정은 단순한 문학적 장치로서만이 아니라, 다른 등장인물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말로우의 내면을 파고들게 할 수 있다. 이는 버나드 패리스(Bernard J. Paris)의 지적대로, “말로우의 반응을 통해서 말로우의 개성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그의 서술은 짐의 내면과 말로우의 내면에 대한 다양한 심리적 기능들을 수행”한다(75). 이러한 전략은 짐의 성격과 내면묘사가 말로우에 의해 전달되고 있으나, 여러 등장인물들과 나눈 대화와 그들의 관계로 인해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심지어 말로우가 믿을만한 서술자인지 아닌지를 추측케 한다. 이러한 서술전략은 작가 콘라드와 말로우를 일치시킬 수 없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무엇보다도 콘라드의 서술전략을 통해 말로우와 짐의 의식과 무의식이 드러나며 이는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찾아낼 시발점이 된다.

말로우는 ‘우리 중의 한 명’을 통해 짐을 선원사회라는 동질의 집단에 포함시키고 선원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준수하는 인물로 설정한다. 여기에는 말로우 자신이 선원 출신인데다가 짐을 양성해야 할 후속 세대로 여기는 연대감이 내재되어 있다. 동시에 말로우의 의식적 무의식적 의도가 드러난 부분이기도 하다. 물론 선원들 모두가 영국인인 것은 아니다. 파트나호의 선장은 독일인이고 다른 선원들은 포르투갈인과 혼혈인 등 다양한 인종들이 뒤섞여 있다. 말로우가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짐이 다른 선원들과 구별되게 행동한다는 점과 선원의 규범을 성실하게 준수하는 인물이라는 점이다(37). 말로우는 짐이 이러한 가치관을 자신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고 보고 그의 도덕적 가치관을 높이 평가한다.

심지어 짐의 과오에도 불구하고 말로우는 짐과의 연대감을 강조하듯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짐을 오히려 두둔한다. 말로우는 짐이 파트나 호에

서 뛰어내린 사건 직후 벌어진 일련의 행위에 대해 절대적으로 짐의 편에서 그를 이해하려고 애쓴다. 거의 강박적이기까지 한 짐에 대한 말로우의 지지는 짐의 태생이나 외모는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약점까지도 진실에 다가서는 모습으로 포장된다. 예컨대 말로우는 짐의 어눌한 말투와 불분명한 발음에서 어떤 진실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한다. 즉 진실은 내적인 것으로서 말로 표현되기 전의 것이며, 그런 까닭에 왜곡 없이 말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짐이 쓴 잉크 자국에 대한 말로우의 반응을 보면 오히려 그의 변명과 합리화가 억지 주장에 가깝다는 인상을 준다. 짐이 휘갈겨 쓴 글씨는 “근거가 없는 막연한 감정의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말로우는 이러한 짐의 “불가해성을 진실의 깊이와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162). 이는 곧 그들의 의식과 무의식이 선원사회의 질서 속에 편입돼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읽힌다. 결국 짐에 대한 말로우의 미화와 옹호는 기본적으로 짐의 도덕적 우월성과 특별함을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이끌어내려는 수사인 셈이다. 말로우의 이 같은 행위는 곧 짐을 신비화하는 작업이면서 더 나아가 짐을 대변하는 선원사회를 신비화하는 전략이다.

반면 짐의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이 설사 짐과 친구가 되었다하더라도, 말로우는 그들을 ‘우리’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여기서 말로우의 이분법적인 도식이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가령 말로우는 파투산의 원주민인 데인 워리스(Dain Waris)가 짐과의 우정으로 신비로운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로 인해 두 사람이 더욱 더 끈끈한 관계를 형성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데인 워리스를 칭송할 때는 “백인처럼 싸우는 법을 아는 자,” 혹은 “유럽적인 정신”과 “이타주의적인 색채”를 지닌 자라는 식의 자기중심적 화법 혹은 유럽 중심적 화법을 구사한다(190). 말하자면 데인 워리스에 대한 칭송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우리의 집단에 편입될 수 없고 백인과 동일시될 수 없으며 동일해서도 안 된다는 의식이 깔려있다. 다만 비슷하거나 닮은 존재일 뿐이다. 이는 짐이 ‘우리 중의 한 명’인데 반해, 데인 워리스는

“그들 중의 한 명”(one of them)이라는 말로우 자신의 발언에서 명료하게 뒷받침된다(263). 말로우가 강조하는 우리는 영국선원사회의 구성원이면서 고상한 가치를 지향하고 행동 규범을 성실히 준수하는 이들로써 적어도 이들의 정체성과 가치에 동조할 수 있는 인물들이다.

무엇보다도 말로우를 포함한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이 영국의 식민지 역사를 투영한다는 사실에서도 ‘우리 중의 한 명’이 영국의 선원사회임을 추측케 한다. 영국의 식민지 개척사에 있어서 항로는 중요한 활로였고, 선원사회의 규범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들이 언급하는 우리가 영국 제국주의를 대표한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의 지리적 배경이 되는 말레이 반도와 동남아시아는 16세기 초 포르투갈의 식민무역의 중심지로서 중국과 아랍 상인들의 무역이 이루어진 곳이다. 이후 17세기는 네덜란드가, 19세기 후반부터는 영국이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다. 예컨대 짐이 뛰어내린 파트나는 실제 갠지스(Ganges) 부근에 있는 동인도의 어느 장소 이름이다. 또 짐이 영웅시된 파투산은 보르네오(Borneo)의 북동부라는 주장도 있고 수마트라(Sumatra)의 북서쪽 남쪽 해안이라는 주장도 있다(Berthoud 310). 중요한 것은 작가가 자신의 경험에 근거하여 또한 이 지역과 관계있는 여러 서적들에 근거하여 원주민과 유럽인의 모습을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유추해 보더라도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이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의 역사를 상기시키고, 우리로 대표되는 집단이 영국의 제국주의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말로우가 언급하는 우리가 영국 제국주의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게 되면, 유난히 이념과 사상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짐의 인격의 고매함과 진실의 깊이를 부각시키려는 말로우의 의도가 도드라진다. 이는 호손의 지적대로 “짐이 겪은 곤경 속에서 사실(facts)보다도 사상(ideas)을 그 핵심 내용으로 바라보는” 말로우의 태도를 통해 명료하게 입증된다(41). 말로우는 도덕적 지향성이라는 짐의 가치와 이상을 우선시하려는 의도와 함

께, 이것을 영국 제국주의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합리화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삼는다. 영국 제국주의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고매한 가치를 강조함은 물론이고 영웅적인 인물을 부각시키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영국 제국주의의 고매한 가치와 우월성의 강조는 이데올로기의 신비화 전략 곧 판타지 만들기와 연결된다.

그런 점에서 말로우의 서술에 의해 전해지는 또 다른 인물, 브라이얼리(Brierly)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짐의 이야기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작품 전체로 본다면, 브라이얼리는 크게 부각된 인물이 아니라 놓치기 쉽다. 그러나 브라이얼리는 파트나 호 사건에서 짐의 판결을 맡은 해양 심판관이다. 브라이얼리는 블루 스타 선박 회사(Blue Star Line)의 선장출신으로서 훌륭하고 용맹한 선원으로 일했으며, 그 역시 선원사회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그의 생각과 행동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어떤 “잘못을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사고를 낸 적도 없었으며 불운을 당한 적도 없는 탄탄대로의 영웅”으로 묘사된다(42). 브라이얼리 역시 짐이 파트나 호에서 뛰어내린 행위를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49). 브라이얼리는 그들을 결속시키는 힘이 조직화된 집단이라기보다, 그 집단을 결속시키는 “존엄성, 마땅히 지켜야 할 본분에 최선을 다하는 명분”이라고 주장한다(49). 여기서 말하는 존엄성이나 명분은 다름 아닌 영국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명분은 때로는 현실을 덮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한다.

그런데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가 구성원들의 판단과 행동에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이 브라이얼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 브라이얼리는 짐을 법정에서 세우는 대신 짐을 도피시키기 위해 말로우에게 도피자금을 마련하자고 제안한다(48). 브라이얼리의 이 같은 행위는 해양 심판관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한 처사다. 브라이얼리는 짐이 수많은 원주민들, 선장과 선원 그리고 조타수가 바라보는 법정에서 서게 될 경우, 은닉된 증거들이 낱알이 밝혀져 선원사회 전체의 수치가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 판단한다(48).

이러한 판단의 근거에는 짐이 법정에서 서는 행위가 선원사회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 그들이 견고하게 쌓아둔 명분이 힘을 잃기 때문에, 짐을 도피시키는 것이 그들의 명분을 유지하는 지름길이라는 계산이 깔려있다. 이는 버투의 지적대로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그(브라이얼리)에게는 건드릴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75). 짐을 도피시키려는 브라이얼리의 행위는 해양 심판관으로서의 양심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만들어놓은 견고한 성의 균열을 무마하고 덮으려는 의도이다. 즉 선원사회/영국 제국주의의 지도력, 더 나아가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공고화하려는 셈법이다. 이것은 지적이 설명한 이데올로기 즉 사회 안에 존재하는 갈등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순이나 감추고 싶은 욕망 모두를 포괄하는 이데올로기의 속성을 여실히 드러낸 부분이다. 브라이얼리의 은닉은 영국 제국주의를 지속시키려는 이데올로기의 신비화/판타지 작업이고 현실 그 자체를 덮으려는 행위이다.

이데올로기의 신비화 작업은 서술자 말로우에 의해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말로우의 표리부동함과 모순이 슬쩍슬쩍 드러나게 된다. 말로우의 표리부동함은 브라이얼리의 자살 사건을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의 태도에서 한층 심화된다(45). 일등 항해사인 늙은 존스 씨(Mr. Jones)가 전하는 브라이얼리의 행동은 마지막까지도 선박회사와 선원사회의 의무를 끝까지 책임지는 행위로 보인다. 문제는 말로우가 타인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브라이얼리의 자살을 “해명할 수 없는 것”이라 못 박으면서, 불확정적이면서 매력적인 “불가사의”(mystery)로 규명한다는 점이다(50). 이 발언은 브라이얼리의 행동에 어떤 대의의 도덕적 명분이 숨어 있다는 암시이면서, 브라이얼리의 자살이 선원사회의 이상을 실현하고 자신의 도덕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식의 옹호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브라이얼리의 자살을 선원사회의 의무와 질서를 끝까지 지키려는 ‘자기희생’으로 덧칠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말로우가 브라이얼리의 행위를 자기희생이라는 직접적 표현으로 노골화하고

있진 않으나 간접적으로 자기희생이라는 암시를 던진다. 말로우의 덧칠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겹겹이 중첩된다. 이는 브라이얼리의 자살이 갑작스런 충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점에 있음을 강조하는데서 명료해진다. 이를테면, 말로우는 죽기 직전의 브라이얼리의 행적에 집중한다. 짐의 두 번째 재판이 있은 후 판결이 연기되자, 브라이얼리는 출항 준비를 위해 측정기를 '0'에 맞추고 몇 마일 지점에서 진로를 변경해야 하는지를 일등 항해사인 존스에게 알려주며 항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끝낸다. 그런 후 브라이얼리는 두 장의 유서를 남긴다(45). 말로우는 이와 같은 브라이얼리의 죽기 직전의 행적이 자살을 대비한 마지막 행위로, 이 자살행위가 짐의 판결에 대한 브라이얼리 자신의 속죄행위 혹은 선원사회의 이상을 지키려는 자기희생이라는 식의 암시를 던지는 것이다.

사실 브라이얼리의 자기희생이 선원사회의 질서를 향한 순연함의 발로 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이는 브라이얼리에 대한 소개가 이 소설 전체 분량에서 무척 짧고, 그에 대한 평가와 인물됨이 일등 항해사인 존스에게 들어서 전하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다만 브라이얼리에 대한 말로우의 평가가 앞서 언급한대로 '불가사의'로 규정되듯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고, 말로우의 인식과 판단마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브라이얼리의 자기희생 여부는 재고의 여지가 분명히 있음을 시사한다. 애매모호하다는 말로우의 평가는 단순히 브라이얼리의 행위 일부분에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짐을 평가할 때와 마찬가지로 브라이얼리의 모호함을 신비함으로 덧칠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들을 바라보며 전달하는 말로우의 판단이, 브라이얼리 자신의 신념이나 논리의 모순이건, 혹은 말로우의 가변적인 판단에 의한 모순이건, 모두 선원사회의 이데올로기를 공고화하기 위한 진실의 은폐 행위라는 점이다. 더욱이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공고화하려는 말로우의 욕망의 대변이라는 점에서, 의식적 무의식적 진실의 은폐행위이다. 말로우의 가변적인 판단은 우리라는 범주 내에서 수평적으로 이

동하면서 왜곡되고 굴절되는 양상을 보인다.

여기서 말로우가 내비치는 브라이얼리의 자기희생은 지젝이 설명하는 자기희생의 개념과 연결된다. 말로우가 이해한대로 실제 브라이얼리의 자살이 선원사회의 어떤 명분을 위한 행위라고 한다면, 브라이얼리의 자기희생은 선원의 도덕적 질서에 대한 믿음의 결과라기보다,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침으로써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브라이얼리가 믿는 것이 영국사회의 도덕적 가치 혹은 선원사회의 도덕적 질서라고 한다면, 브라이얼리의 믿음은 영국사회의 질서나 선원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신뢰해서라기보다, 자살의 행위로써 선원의 도덕적 질서를 믿고 있음을 ‘보여주려’ 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슷한 자살이 또한 짐에게서도 일어난다. 작품의 후반부의 배경이 되는 파투산에서 짐은 그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짐의 죽음은 사실 거의 자살에 가깝다. 짐은 친구인 데인 워리스가 도라민(Doramin) 부족과의 싸움에서 죽음을 맞이하자, 데인 워리스의 죽음을 책임지기 위해 도라민의 부족 앞에 무장 해제된 채로 걸어간다. 사실 부족장인 도라민은 자신의 아들, 데인 워리스를 그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 삼고자 했고 이를 인지한 짐은 친구의 죽음을 책임지기 위해 부족 앞에 나섰던 것이다. 결국 짐은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게 되고 짐의 행위도 자기희생인 셈이다. 짐의 자기희생은 호손의 지적대로 “짐이 고통스럽게 구축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로지 죽음을 통해서”였기 때문이다(47). 말하자면 짐은 스스로 획득했다고 생각한 영웅으로서의 정체성을 죽음을 통해 입증하려 한 것이다. 여기서의 영웅은 “제국주의 영국사회의 선원에 대한 요구, 즉 사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라는 명령이 구체화된 이미지”인 셈이다(김태숙 31).

지젝에 따르면 어떤 질서와 신념을 위한 자기희생⁵⁾이 기본적으로 “이데

5. 지젝은 자기희생의 논의를 위해 스탈린주의 작가이자 소련 작가동맹의 의장인 알렉산더 파테예프(Alexander Fadeyev)의 자살과 어느 독일시장의 자살을 예로 든다. 파테예프는 제 20차 공산당대회에서 흐루시초프의 비밀 보고를 들은 후 곧바로 권총자살을 하는데 그의

올로지적인 착각”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지젝은 자기희생의 “수행적인 힘”을 강조하고 있다(『탈이데올로기』 48). 브라이얼리의 자살과 자살에 가까운 짐의 죽음은 지젝의 자기희생 개념과 연결된다. 이들의 자살은 선원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완벽하게 ‘믿는 척 하는’ 행위이다. 동시에 말로우 역시 이들의 자살을 선원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향한 자기희생의 개념으로 인식하면서 말로우도 이데올로기적인 착각을 하고 있다. 이는 지젝이 언급한대로, 자기희생은 “이데올로기적인 착각 자체의 ‘수행적인 힘’에 대한 믿음”에 있다(『탈이데올로기』 48). 자기희생은 그들이 믿는 이데올로기의 보증이 아니다. 오히려 브라이얼리와 짐 그리고 말로우는 단지 선원사회의 질서나 영국의 도덕적 가치라는 ‘이데올로기적 착각’ 속에 거하는 인물들이다. 그런 점에서 선원사회의 도덕과 영국사회의 도덕적 가치의 요구는 주체의 극단적인 희생을 강요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주체들은 하는 척하는 수행적인 행위로써, 자신이 그러한 가치를 지켜낸다고 믿는 이데올로기적인 착각을 한다. 이는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가 단순한 거짓이 아니라, 진실로서 경험되는 거짓이고 자신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것을 주장하는 거짓이다. 그러므로 자기희생이 함의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착각은 도덕적 이상에 내재된 모순이다. 요컨대 선원사회의 도덕적 이상과 영국 제국주의의 도덕적 가치를 위해 주체는 극단적인 희생을 강요받고, ‘하는 척’하는 수행적인 행위를 통해 주체는 대타자인 영국의 선원사

자살을 두고 “정직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그는 체제 상층부의 부정부패를 충분히 알고 있었고 그런 이유로 그의 자살은 흐루시초프의 보고서에서 어떤 새로운 사실을 안 것이 아니다. 파테예프가 믿었던 것은 대타자로 사회주의적인 새로운 인간의 공적인 외양이다. 독일시장의 경우, 그는 자신의 마을을 점령한 미군에 의해 강제로 근처의 포로수용소를 방문하고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자살한다. 그런데 이 자살은 충성을 바쳐 일한 정권의 실상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다소간 모든 것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가 몰랐던 것은 대타자로서 사회의 외양적 질서였다. 더욱이 지젝은 이러한 자살을 “궁극적인 위선의 행위”로 보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척하는 행위”였다는 점을 지적한다(『탈이데올로기』 46-49, 85-86).

회/제국주의에 종속된다. 이것이야말로 자기희생이라는 가면이 만들어내는 이데올로기의 또 다른 신비화 작업이다.

IV. 스펙터: 도피의 반복

짐이 파트나 호에서 뛰어내린 사건은 이 작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로드 집』을 읽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가령 파트나 호 사건을 중심으로 이 작품이 짐의 죄의식과 그에 대한 속죄의 과정으로 읽히기도 하고, 혹은 이 사건이 짐의 도덕적 죄책감을 강화시켜 상대적으로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논의를 약화시키고 형이상학적 차원에 머무르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또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 전반부에서 다른 짐의 불명예가 주제의 통일적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후반부에서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하고, 오히려 정반대로 짐의 불명예가 회복되지 못한다는 식으로 분석하기도 한다(Watt 57-60; Raval 89). 필자는 짐의 죄책감에 초점을 두되, 이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도피와 탈출이 오히려 제국주의의 모순을 결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한다. 파트나 호에서 뛰어내린 사건 직후, 짐은 그 순간을 나름대로 변명하면서 자신의 비겁함이나 용기 없음을 지속적으로 부인한다.

문제의 핵심은 이 사건을 통해 짐이 일종의 트라우마(trauma)를 겪고 이것을 결코 극복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짐의 트라우마는 강박적인 반복의 형태를 띠며 억눌린 것이 되돌아오는 형국이다. 800여명의 순례자들을 태운 파트나 호가 난파선의 잔해로 의심되는 부유물과 부딪쳐 침몰될 상황에 놓였을 때, 짐은 승객들을 구조할 방법이 전혀 없었고 시간도 없었다고 고백한다. 특히 배에 비치된 구명보트가 7척밖에 되지 않았다고 변명한다(62-63). 그러면서 자신은 “전혀 두렵지 않았다”고 강조한다(63). 그러나 두렵지 않았다는 짐의 항변은 오히려 ‘정말로 두려웠다’는 반어로 읽힌다. 이는 작품 곳곳에서 등장하는 짐의 불안과 공포의 흔적에서 확인된

다. 파트나 호가 침몰의 위기상황에서 뱃머리 짐칸에 물이 절반 이상을 채웠을 때, 짐은 배가 침몰할 것이라 예상하고 위기의 상황을 선장에게 보고한다. 그러나 선장은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치면서 짐도 뛰어내리라고 재촉한 것이다(80). 짐 역시 수많은 순례자들을 포기하고 뛰어내린다(81). 그리고 “뛰어내렸던 것 같다”는 그의 희미한 고백처럼 짐은 영웅이 아니라 소심한 겁쟁이를 선택한 것이다(81). 결국 짐의 선택은 짐을 한량없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간다(81). 한량없는 깊은 수렁이란, 짐의 죄책감과 패배 의식을 규명해 주는 심리적 물리적 은유이다. 짐이 뛰어내리기 전, 선원들이 도망치기 위해 구명보트를 내리는 것을 도와달라는 선장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짐은 훈련양성 연습선에서 그랬던 것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말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다(67).

그런데 짐이 파트나 호에서 뛰어내린 행위는 간단했으나, 파트나 호에서 뛰어내리기 직전까지의 주변상황과 짐의 심리적 갈등 그리고 그로 인한 공포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비록 800여명의 순례자들이 나중에 프랑스 중위에 의해 구조되긴 했다. 그러나 도망친 선원들의 비겁함과 무책임함은 짐의 도덕적 비난의 문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선원사회 전체로 향하는 비난과 직면해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짐은 스스로를 계속해서 변명한다. 말로우 역시 짐을 옹호하고 심정적으로 동조하면서 대체로 그를 두둔한다. 자크 다라스(Jacques Darras)의 지적대로, “말로우는 짐을 통해서 평가절하 된 꿈을 위해 그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신뢰가 법의 질서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말로우 자신의 옹호를 통해서 증명해 보인다(26). 짐에 대한 말로우의 두둔과 신뢰는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려는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짐을 동조하는 데 더 큰 방점이 찍힌다. 파트나 호에서 뛰어내린 사건으로 인해 짐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반복적인 고통을 경험하며 결코 치유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른다. 짐의 반복적인 행위는 파트나 호에서 뛰어내렸던 순간부터 그에 대한 죄책감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킨다. 짐에게 드러난 가장 치명적인 심각성은 자율적이고 주체

적인 결정과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 있다.

사실 짐의 강박은 평소 낭만적인 모험을 꿈꾸거나 몽상가적인 그의 속성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평소 짐이 탐닉한 문학작품 속의 영웅이 객관적인 현실인식을 방해한 장치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는 데서 확인된다. 짐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문학작품 속의 영웅을 포기하지 못한다. 낭만적인 모험의 꿈을 지닌다는 점에서, 짐은 “식민지 개척시대의 정서를 가진 몽상가적 식민지인들에 속하면서” 동시에 “현 상태 유지의 정신 상태”를 지닌 식민지인의 모습이라 볼 수도 있다(고부웅 286). 다른 한편, 이러한 영웅담에 사로잡힌 나머지 인류를 구원하고 봉사한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체득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말하자면 문학 작품 속의 영웅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짐 자신이 바로 그러한 영웅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짐이 이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걸까. 그것은 짐의 내면에 숨겨져 자신의 의지로도 어찌할 수 없는 어떤 지점 때문이다. 물론 짐이 파트나 호에서 뛰어내린 행위는 조지 파니카스(George Panichas)의 주장대로 “짐의 도덕적 결함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16). 그러나 짐이 파트나 호에서 뛰어내린 것을 그의 도덕성의 여부로 판단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한 점이 있다. 혹은 짐의 모호하고 불확실한 태도가 “인간내면의 진실을 향한 여정”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Tanner 58). 그러나 태너의 견해 역시 짐이 과거를 회피하고 멀리 떨어진 곳을 찾아 고립을 택하는 이유를 완벽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짐의 행위는 “끊임없는 죄책감으로 인해 심리적인 불구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짐 자신과 파투산에 재앙을 가져온 것”이라 해석하는 이안 와트(Ian Watt)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60).

짐이 겪은 트라우마는 ‘작가의 노트(Author’s Note)’에서 이 책을 읽은 어느 부인이 “너무 병적이다”라는 언급을 했듯이(306), 짐의 병적 심리상태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제임슨의 지적대로, “짐의 트라우마가 기본

적으로 문자 그대로 반복이라는 기초 위에서 성립”되었다는 점에서(262), 민감한 짐의 심리적 상태를 여실히 드러낸다. 트라우마는 충격이나 사고로 인한 신체적 질병이 없더라도 외상 후 스트레스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이 증상은 강박적인 반복(repetition compulsion)의 행위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반복적인 행위는 프로이트가 설명하는 강박 신경증(obsessional neurosis)에 속한다. 강박 신경증은 신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정신적인 증상이다. 또한 이는 무척 낮은 충동으로 다가와, 어떠한 기쁨도 주지 못하는데도 도저히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특징이 있다(234). 문제는 짐의 이러한 죄책감은 차치하고라도, 그로 인해 파생된 짐의 강박적 행동방식과 집착이 그의 삶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데 있다.

사실 짐의 죄책감은 수많은 승객들을 버리고 선장 일행과 함께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쳐버린 구체적인 행위에서 비롯된 것이며 선원사회의 도덕적 질서를 파괴한 데에 따른 죄책감이다. 짐의 죄책감과 그로 인한 탈출과 도피가 짐의 무의식을 구성하는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핵심적으로 드러낸다. 짐이 지향하는 영웅의 모습과 나약하고 비겁한 상황이 대조를 이루면서 커다란 괴리를 형성하고, 동시에 그 틈새를 메우려는 병적인 집착이 그의 삶 전체를 구성한 것이다.

그런데 짐의 죄책감과 패배의식은 욕망에 부합하지 못한 주체의 자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죄책감은 그가 정면으로 바라보는 상태와 그의 상상 속의 영웅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짐이 마주한 것은 책 속에서 활약했던 영웅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비겁하고 초라한 상태의 겹쟁이다. 짐이 마주한 ‘실재’와 ‘현실’의 간극이 확인되는 지점이다. 지젝은 현실과 실재를 다음과 같이 규명한다. “만약 우리가 ‘현실’(reality)로 체험한 것이 판타지(fantasy)에 의해 구조화된 것이라면, 판타지는 우리가 날것의 ‘실재’(real)에 직접적으로 압도당하지 않도

록 보호해주는 장막으로 기능하고, 그때 현실은 실재와의 대면으로부터 도피하는 기능”을 한다(Žižek, *Sublime* 89). 짐의 현실과 실재를 지적의 이론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짐이 실제 상황에서 체험한 것(폭풍우와 몰아치는 비바람으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승객들을 구출하지 못한 것)은 판타지(소설 속에 나오는 영웅처럼 모든 승객들을 무사히 구하는 영웅의 모습)와 완벽하게 괴리를 형성하며, 판타지는 짐이 날것의 실재(죽음의 공포, 거대한 자연의 힘에 대한 공포, 죽음에 직면한 800여명의 승객들의 모습)와 대면하는 것으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짐이 체험한 실재는 파트나 호의 녹슬고 낡은 외양처럼 혹은 파트나 호를 구성하는 다양한 인종들의 복합성이 자아내는 불편한 요소들처럼, 자신이 구축한 판타지와 결코 맞닿을 수 없는 불편한 진실들이다. 그런 까닭에 짐의 현실과 실재는 영원히 만나지 못한 채 분리되어 있다.

짐을 억누르는 무의식적 힘은 진실과 마주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짐을 도피시키고 고립시킨다. 자신의 과거로부터 멀리 떨어진 밀림 속 말레이족의 마을에까지 숨어들어간 짐의 행위는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발버둥일 것이다. 이는 다라스의 지적대로 “짐의 영웅주의는 생존하기 위해서 보호와 고립을 필요로 하는” 형국이다(25). 짐의 죄책감은 짐의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억눌린 형태로 표출되는 특징이 있다. 짐은 파트나 호의 사건을 상기시키는 모든 인물들과 상황 그리고 장소를 회피한다. 자신의 과거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봄베이(Bombay), 캘커타(Calcutta), 랑군(Rangoon), 페낭(Penang), 바타비아(Batavia), 오늘날의 자카르타(Jakarta)에 이르기까지 동양의 여러 항구들을 전전하면서, 사건이 일어난 지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동쪽을 향해 짐은 표류한다. 가령 짐은 자신이 편하게 살 만한 곳을 찾아 에그스트룀 앤 블레이크(Egström & Blake) 상회의 선박 상회에서 일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도 자리를 잡지 못한다. 짐의 일자리를 알아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은 말로우이다. 그러나 그의 노력들은 헛수고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136). 말로우는 짐이

이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써 주기도 하나, 짐은 또 얼마 버티지 못하고 갑작스레 사라진다. 그 후 방콕에서 6개월간이나 돌아다니다가 다시 말로우와 함께 배를 타고 그곳을 떠나 기나긴 항해를 하지만 그것도 얼마가지 못한다. 다시 드용(De Jongh)의 밑에서 일하게 되나 이 역시도 얼마 가지 못한다(142-45).

이런 식으로 짐은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에 적응하지 못하고 회피한다. 동쪽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간 것은 파트나 호에서 뛰어내렸던 사건과 그에 대한 소문의 진원지로부터 멀어지려는 것이다. 파투산으로의 도피는 자신이 영웅이고 싶은 판타지를 실현시키기 위함이다. 오히려 영웅적 행위를 발현할 곳을 찾아 헤맨 것이고 짐의 영웅주의 판타지는 지속적으로 작동한 셈이다.

짐에게 출현하는 ‘실재’는 말로우의 표현처럼, “침통하지만 젊음이 넘치는 그의 매끈한 얼굴이 무엇인가에 집착”하여 “영문을 알 수 없고 해명되지 못하며 종잡을 수 없고 깊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깊이를 측량하기 위해 접근하는 데도 절망감”을 느낄 만큼의 무엇이다(132). 여기서 말로우가 설명하고 있는 짐을 괴롭히는 집착의 그들은 바로 스펙터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 스펙터는 작품 곳곳에서 자주 등장하는 “정령”(spirit), “유령”(ghost), “스펙터”(spectre), “환영”(phantom)과 같은 유령의 형태와 겹쳐진다.

그런데 말로우는 이해하기 힘든 짐의 행동들에 대해 유령과 맞서거나 피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여기서 말하는 유령은 짐이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영웅주의, 영웅주의가 억누르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과오와 나약함, 그리고 그 간극에서 벌어지는 표현할 수 없는 여러 복합적인 것들이다. 짐의 행동이 “이 유령과 싸우는 것인지 피하지는 것인지 도무지 알지 못 한다”는 말로우의 고백은 짐의 억눌린 상황을 드러내는 복합적 의미의 스펙터이다(142). 짐에게 있어서 원초적으로 억압된 것은, 바로 나약하고 실수하며 이기적인 인간이라는 솔직한 감정이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 비록 비중 있게 다뤄지는 인물은 아니나 필자의 눈길을 끄는 인물이 있다. 배가 기울어 곧 바다에 빠지게 될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선원들이 파트나 호에서 뛰어내려 구명보트로 도망칠 궁리를 하는 동안, 두 명의 말레이인은 속도도 내지 못하는 기선에서 줄곧 타륜의 키를 고수하며 그곳을 지킨다. 이들은 배와 함께 침몰하여 죽을 수 있었음에도 끝까지 키를 놓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고백대로, 타륜을 버리지 않은 이유는 어떤 거창한 대의명분 때문이 아니라,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한 이유 때문이었다. 즉 타륜을 버릴 이유가 전혀 없었고 어떠한 명령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들과 함께 한 사람들에게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다(70-71). 말레이인의 이 같은 고백은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인간에 대한 신의를 보이고 있다. 이들의 존재는 파트나 호에서 뛰어내린 짐과 여러 면에서 비교된다. 짐이 그토록 바랐던 영웅의 모습 혹은 선원의 모습은 파트나 호의 선장이나 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작 백인들에게 잊혀져버린 이름 없는 말레이인에게서, 지극히 평범하고 우연한 방식으로 성취되고 있다. 이 일화는 콘라드가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제국주의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주인공 짐이 승객들을 버리고 파트나 호에서 뛰어내린 사건 직후 갖게 되는 죄책감과 그로 인한 반복적인 도피의 의미를 규명하고 이것이 억눌린 본질의 귀환임을 지젝의 판타지와 스펙터의 개념을 통해 입증했다.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정령,” “유령,” “스펙터,” “환영”은 서구의 무의식 속에 각인된 유령으로, 백인의 도덕적 책임감이라는 우월주의에서 비롯된 기이한 형태의 흔적들이다. 이 유령들은 등장인물의 무의식을 형성하고,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억눌린 무의식이 드러난 지점이며,

이는 곧 서구 제국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핵심적으로 드러낸다. 말로우를 통해 언급된 우리는 선원사회/영국 제국주의를 대변하고 동시에 영국 제국주의 사회에 존재하는 균열과 모순을 감추려는 자들이다. 감추고 덮으려는 이러한 행위는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신비화/판타지 전략이다. 주인공 짐과 서술자 말로우를 비롯한 선원사회/영국 제국주의는 우리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이들을 배제시킴으로써 ‘그들’과 ‘우리’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한다. 또 제국주의적 영웅주의를 실현하려 하나, 그들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한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가 그들의 자연스런 본능과 자유를 억누르는 아이러니를 보여준다. 특히 브라이얼리의 자살과 짐의 자살은 선원사회의 도덕과 영국의 도덕적 가치를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위장된 행위로서 지젝의 자기희생 개념과 연결된다. 이들의 죽음이 그들이 속한 질서를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척하는’ 행위로 실상은 진실인 척하는 거짓된 행위이다. 동시에 말로우를 포함한 선원사회의 ‘자기희생’ 전략은 제국주의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고도화된 이데올로기의 신비화 전략이다.

지젝의 이데올로기 개념을 통해 살펴본 영국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서구 주체의 모순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길을 제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서구 주체의 자기성찰 없는 개혁이 인간의 근원적인 자유와 바람직한 본성을 구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오히려 서구주체 내부의 균열과 모순에 집중하는 이러한 작업이 절실하다. 지젝의 이데올로기론이 콘라드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차별성을 갖는 부분은 서구주체 내부의 모순, 즉 억눌린 무의식이 해결되지 못하고 잉여나 잔여의 형태로 남아 지속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병리학적 구조에까지 파고드는 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젝의 이데올로기론을 통해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의 모순을 규명하는 이러한 시도는 문학작품의 이데올로기 비판 기능과 연결되고 콘라드의 작품을 보다 더 심층적으로 읽는 한 방법이 된다.

Works Cited

- Berthoud, Jacques. *Joseph Conrad: The Major Phase*. Cambridge UP, 1993.
- Berthoud, Jacques, editor. "A Note on Sources." *Lord Jim*, Joseph Conrad, Oxford UP, 2008, pp. 307–14.
- Chon, Soo Young [전수용]. "Munhagui Ideollogi Bipanyangsik" [The Mode of Ideology Critique in Literature, 문학의 이데올로기(Ideology) 비판 양식]. *Shinyeongeoyeongmunhak* [The New Studies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신영어영문학], vol. 39, 2008, pp. 167–81.
- Conrad, Joseph. *Lord Jim*. Edited by Jacques Berthoud, Oxford UP, 2008.
- Darras, Jacques. *Joseph Conrad and the West: Signs of Empire*. Macmillan, 1982.
- Freud, Sigmund. *New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Translated by J. Strachey, Norton, 1967.
- G nette, Gerard. *Narrative Discourse: An Essay in Method*. Translated by Jane E. Lewin, Cornell UP, 1980.
- Hawthorn, Jeremy. *Joseph Conrad: Language and Self-Consciousness*. The U of Nebraska P, 1979.
- Jameson, Fredric. *The Political Unconscious: Narrative as a Socially Symbolic Act*. Cornell UP, 1981.
- Jung, Sun Hee [정선희]. "Kolladeuui Jakpume Natanan Ideollogi Ikgi: Jijegui Pantajiwa Seupekteo Gaenyeomeul Jungsimeuro" [Reading the Ideologies in Joseph Conrad's Works: Based on Slavoj  izek's "Fantasy" and "Spectre" 콘라드의 작품에 나타난 이데올로기 읽기: 지적의 판타지와 스펙터 개념을 중심으로].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이화여자대학교], 2015.
- Kim, Tae Sook [김태숙]. "Rodeu Jimui Pateuna Ho Sageone Natanan Jaasangwa Yongmang" [Ego-Ideal and Desire in the Patna Incident of *Lord Jim*, 『로드 짐』의 파트나 호 사건에 나타난 자아이상과 욕망]. *Hyeondaeyeongeoyeongmunhak* [Contemporary English Literature, 현대영어영문학], vol. 55, 2011, pp. 23–48.
- Ko, Bueung [고부웅]. "Kollaedeuui Rodeu Jimeseo Ingneun Bansingminjeohang" [Anticolonialism Resistance Reading in *Lord Jim* of Conrad, 콘래드의 『로드 짐』에서 읽는 반식민저항]. *Yeongeoyeongmunhak* [English Literature, 영어영문학], vol. 43, no. 2,

- 1997, pp. 279–303.
- McClure, John A. *Kipling & Conrad: The Colonial Fiction*. Harvard UP, 1981.
- Panichas, George A. “The Moral Sense in Joseph Conrad’s *Lord Jim*.” *Humanitas*, vol. 13, no. 1, 2000, pp. 10–30.
- Paris, J. Bernard. *Conrad’s Charlie Marlow: A New Approach to “Heart of Darkness” and Lord Jim*. Palgrave Macmillan, 2005.
- Park, Sun Hwa [박선화]. “Rodeu Jimeseoui Kollaedeuui Seosajeollyak: Mallou Uri Jungui Han Saram” [Conrad’s Narrative Strategy in *Lord Jim*: Marlow, “One of Us”, 『로드 짐』에서의 콘래드의 서사전략: 말로우 “우리 중의 한 사람”]. *Geundaeyeongmisoseol* [The Korean Society of British and American Fiction, 근대영미소설], vol. 20, no. 1, 2013, pp. 58–80.
- Raval, Suresh. “Narrative and Authority: Conrad’s Art of Failure.” *Joseph Conrad’s Lord Jim*, edited by Harold Bloom, Chelsea House Publishers, 1987, pp. 77–98.
- Tanner, Tony. *Conrad: Lord Jim*. Edward Arnold, 1963.
- Watt, Ian. “The Ending.” *Joseph Conrad’s Lord Jim*, edited by Harold Bloom, Chelsea House Publishers, 1987, pp. 57–75.
- Žižek, Slavoj. *Mapping Ideology*. Verso, 1994.
- _____. *The Sublime Object of Ideology*. Verso, 1989.
- _____. *Tarideollogi Sidaeuui Ideollogi: 20segie Daehan Cheolhakjeong Pyeongga* [The Ideology of the Post-Ideological Period: Philosophical Evaluation of the 20th Century, 탈이데올로기 시대의 이데올로기: 20세기에 대한 철학적 평가]. Translated by Kim Sanghwan [김상환 옮김], Philosophy and Reality [철학과현실사], 2005.

Abstract

Reading *Lord Jim* Based on Slavoj Žižek's “Fantasy” and “Spectre”

Sunhee JUNG (Ewha Womans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imperial ideology represented in Joseph Conrad's work, *Lord Jim* focusing on Slavoj Žižek's theory of reality as constructed fantasy, and investigates how Conrad's *Lord Jim* discloses the contradiction of the ideology. The nineteenth-century Western European ideology at the root of Euro-Centrism and humanism, which Conrad often focused on, had a significant impact on forming the discourse of imperialism. The Inconvenient ghosts roaming in Conrad's *Lord Jim*, which Žižek defines as Spectre, are the examples of the most important essence oppressed by ideology, returning in the guise of spectral apparitio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main character Jim's feeling of guilt haunting him ceaselessly including the narrator Marlow and the compulsory repetitive action caused by it after jumping from the Patna and abandoning the passengers. I argue that “One of us” repeated by the narrator Marlow as a leitmotif represents the society of seaman and British imperialism at the same time, ironically the people who try to conceal the discrepancy and contradiction existing in the British imperialist society.

Keywords: ideology, imperialism, spectre, fantasy, Žižek, one of us

Sunhee JUNG is a part-time instructor of GLEO in Ewha Womans University and a tutor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Department in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She received her Ph.D.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t Ewha Womans University in 2015.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19th and 20th century british novels, literary

criticism, and Slavoj Žižek's Ideology. Her articles include the following: a Doctoral thesis "Reading the Ideologies in Joseph Conrad's Works: based on Slavoj Žižek's Fantasy and Spectre" (2015), an article "The Question of Sentimentality in *The Wrongs of Woman* and *The Italian*" (2011), and more.

shjung5@hanmail.net

Received: 30 April 2017
Reviewed: 8 June 2017
Accepted: 15 June 2017